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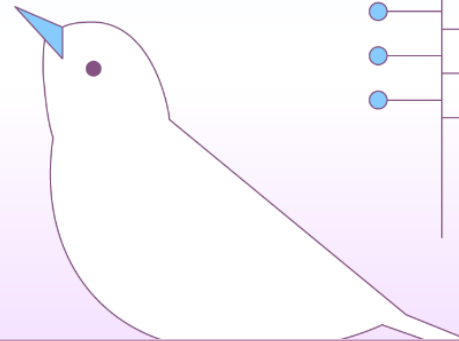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풍

《드립핑 스테이션: 찬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종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지구별에 존재하는 친구에게〉



지구 별에 존재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나와 친구, 가족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 달팽이, 식물처럼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전시를 감상하면서 어떤 생명체, 혹은 존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 친구들은 지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며,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To. 새

새들아.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져서 너희들이 달수와 각종 곤충질환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 너희보다 몇십배, 몇백배나
크고 심지어 깃털도 없는 우리도 이렇게나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인간들이 미안해.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만든거야... 앞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꼭 노력할게.

From. 지연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품
《드리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지구 별에 존재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나와 친구, 가족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 달팽이, 식물처럼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전시를 감상하면서 어떤 생명체, 혹은 존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 친구들은 지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며,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To.

지구가 별이야?

꼭바로 말해

지구는 '행성'이야.
(별은 항성이야)



내가 행성!

지구



내가 행성!

태양
From.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품
《드리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지구 밖에 존재하는 친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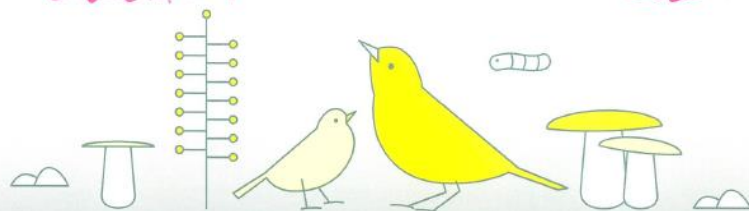
우리는 나와 친구, 가족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 달팽이, 식물처럼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전시를 감상하면서 어떤 생명체, 혹은 존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 친구들은 지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며,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정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To. 연어♥

연어야, 🐟! 마당때 짝이면 항상 아이들처럼
같이 노래를 불러서 너가 마당! 생명이 있어.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과 너의 일상에 대해
알아보며 너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알이 낳기 위해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오르지 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나도. 같은 🐟!
응원할게~!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풍
《드러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지구 밖에 존재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나와 친구, 가족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새, 달팽이, 식물처럼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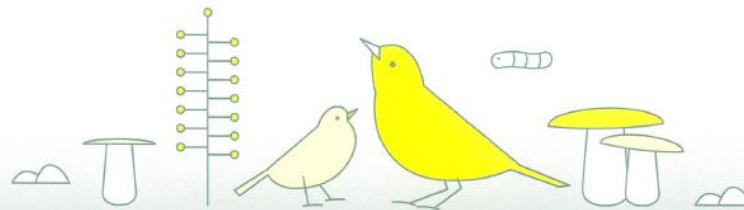
전시를 감상하면서 어떤 생명체, 혹은 존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 친구들은 지구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며,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정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To. 독에게!

독아... 너는 여기저기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차이고... 또 차이고.. 하지만, 너는 우리에게
타운날 잠시 쉬여갈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고,
바람과 물에 의해 각이면서 우리에게
볼 거리를 주는 아국 소중한 친구야...
부디 그 자리에서 계속 빛나길 바랄게.

F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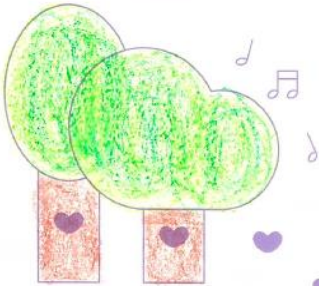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풍
《드러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Q1. 전시장 입구 바닥에 보이는 야생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떠났을까요?

떠난다의 정의를 무엇으로 해야할까, 야생동물은 인간은 모두 '자연'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에 따라 생각해 보면 순전히 '자연'이 '자연'으로 돌아간 것 아닐까.

김정모, 당신의 발 밑에서



Q2. 나무를 향해 노래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세요. 식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한 양파 실험이 큰 여자로 생각이 났다.
어떤 양파는 비닐을 받아도 잘 자라지만 어떤 양파는
경전을 받아도 잘 자라지 못했다. 감정을 짐작하는 일 만큼
쉽고, 의미있는 일이었다.

천경우, 나무들을 위한 노래

Q3. 작가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베이킹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살고있는 생명체는 어떤 음식이나 요리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 생명체를 무엇가에 비유해보려 해도 생명체의 폭이 너무 넓어 생각이 분산된다. 이렇거나 다양한 생명체들과 섞여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데스, 지질학적 베이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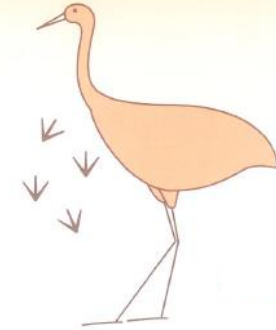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품
《드림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Q1. 전시장 입구 바닥에 보이는 야생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떠났을까요?

그들의 본능이 이끄는 곳으로,
혹은 다른 누군가의 본능에 이끌려
갔을 수도 있겠네요.

김정모, 당신의 발 밑에서



Q2. 나무를 향해 노래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세요. 식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식물은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는 없지만
식물을 노래하는 이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감정이든, 소중합니다.

천경우, 나무들을 위한 노래

Q3. 작가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베이킹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살고있는 생명체는 어떤 음식이나 요리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공기는 솜사탕, 태양은 캔디, 달은 페레로체
모래는 밀크 셰이크, 바다는 파스타, 적층은 라자냐,
전봇대는 배배로, 나뭇잎은 말차, 지구는 피자
고양이는 식빵

안데스, 지질학적 베이커리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품
《드림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Q1. 전시장 입구 바닥에 보이는 야생 생물들은 모두 어디로 떠났을까요?

우주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 요..?

김정모, 당신의 발 밑에서



Q2. 나무를 향해 노래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세요. 식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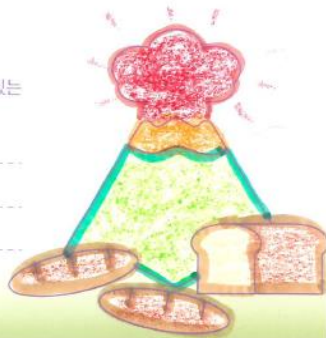
푸른 들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몸을 흔드는 나무는 신이 날 것 같아!

천경우, 나무들을 위한 노래

Q3. 작가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베이킹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살고있는 생명체는 어떤 음식이나 요리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과일 샌드'처럼 다양한 색깔이 뒤섞인 크림 속 생명체들..

안데스, 지질학적 베이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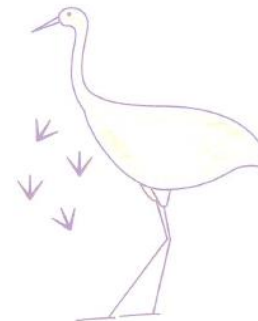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품
《드림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Q1. 전시장 입구 바닥에 보이는 야생 생물들은 모두 어디로 떠났을까요?

신체는 동지간 아무것도 없는 사막 어딘가로 떠났을 것
결과 자신의 죽음을 연변도 마주해보지 못한 곳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

김정모, 당신의 발 밑에서



Q2. 나무를 향해 노래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세요. 식물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을의 색은 목수로 인어 나무는 푸른 봄과
가을은 초록빛 색으로 물들어간 있을 것이라.

천경우, 나무들을 위한 노래

Q3. 작가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베이킹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살고있는 생명체는 어떤 음식이나 요리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슈 - 파프리카 & 파.

안데스, 지질학적 베이커리



2025 아르코미술관 예술로(路)소품
《드림프팅 스테이션 - 천미와 애도에 관한 행성간 다중 오페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